

바이오산업 육성 10년간 4조4000억 투입

전남도 바이오산업 육성전략 의약·농생명·해양 54개 과제 백신·헬스케어비즈니스 거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전남도가 앞으로 10년간 바이오산업에 4조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백신·헬스케어, 면역세포치료,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해양바이오, 혁신형 스마트농생명, 천연물 산업 등을 육성해 전남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남도는 28일 "블루 바이오 프로젝트 성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30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오는 2030년까지 4조4535억원을 투입해 54개 핵심 세부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은 의약·농생명·해양바이오투자를 포괄한 7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사업으로 백신·헬스케어 비즈니스 거점 구축 8개 사업에 1955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초고령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글로벌 백신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백신 연구개발부터 임상, 제품화, 인허가로 이어진 전주기(全週期) 백신·헬스케어 국가 거점을 완성하기로 했다.

면역세포치료 첨단 생태계 구축 9개 사업에는 4363억원을 배정했다.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유치 추진 중인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사업비 460억원)'을 중심으로 난치성 특이질환인 암, 치매 등의 면역치료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간 165조원의 세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조성에도 7개 사업 1조8147억원을 들여 전남의 풍부한 바이

오, 메디컬 자원을 융합한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오는 2022년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의약·치유를 연계한 의료·휴양 복합서비스 플랫폼과 AI, 방사광기속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원천 기술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해양바이오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 5개 사업에 9736억원을 투입, 풍부한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미래 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양치유단지(1402억원)와 해양바이오산업클러스터(1160억원) 등 해양치유·소재 고도화를 촉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 8개 사업에도 6220억원을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무인화, 자동화, 인공지능화)을 접목한 첨단 농업생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남 난대 산림자원을 활용한 난대수목원과 산림바이오 거점

을 구축해 항균·항바이러스·항장 소재 등 기능성 소재 발굴과 산업화에 나선다.

천연물 산업 실증·생산단지 조성 10개 사업에 1395억원, 바이오 벤처 지원체계 구축 7개 사업에 2719억원 등을 투자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 육성전략이 마무리되면 총매출 4조5000억원, 신규 일자리 4만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남도가 유치에 나선 방사광가속기와 의약·농생명·해양바이오가 연계되면 전남 바이오산업이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민선 7기 이후 전남도는 바이오산업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바이오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갔으며 '앞으로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해 이를 기반으로 '2030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19로 외부 활동 줄어 119 긴급출동도 감소



올해 3월까지 전남소방본부 집계결과 도내 119구급대이송환자는 1만7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감소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병원 이용을 기피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송

환자 발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질병이 1만 993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부상 3741명(20.9%), 교통사고 2295명(12.9%), 기타 840명(4.7%)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환자를 이송중인 119 구급대원. <전남소방본부 제공>

전남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적극 대응

시·군 예비계획 사전 컨설팅

전남도는 농촌 주민 소득 향상과 생활 편의시설 증진을 위해 농식품부의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농촌 어디서나 불편 없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주로 읍·면 소재지에 추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비롯 '기초생활거점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활력플러스 사업', 주민·중간지원조직·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이 해당된다.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0억원, 기초생활거점사업 40억원,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원, 시·군역

량강화사업 3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농촌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역계획지원단을 활용, 시군에서 수립 중인 예비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농식품부 공모사업 평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 16개 시·군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개소를 비롯 기초생활거점사업 15개소, 신활력플러스사업 2개소, 시군역량강화사업 13개소 등 총 36개소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이 신청한 사업대상지 중 사업·개발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생활기반시설 복합화, 시설물의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등을 평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토크 청렴문화 확산 기여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별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토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맞춤형 청렴토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착안한 것으로 각 부서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 찾아가는 격의 없는 대화형식의 청렴토크로 지난 20일부터 5일간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 달라진 ▲부패방지제도 ▲임직원행동강령 ▲정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대한 교육과 직원들의 청렴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 결과도 분석해 실적이 좋은 분야는 적극 유지하고 미흡한 분야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는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5대 추진전략 및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사업지구 현장 내 감독관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청렴교육, 6월에는 청렴 문화현장 체험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코로나 피해 농가 돕기' 멜론 완판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 등 전남 지역 멜론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상생장터를 개설해 나주 멜론 350상자를 완판했다. 또 전남경찰청과 교육청, aT 등 기관·단체에 멜론 사주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이동장터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멜론 300여 상자를 판매하기도 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전남 스타 200인' 지원 금액 상향

전남도는 미래리더, 예술리더, 체육리더 등 인재로 구성된 '전남 스타 200인'에 2차년도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해 최대 10년까지 지원, 안정적인

역량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대학생 5명, 고등학생 20명, 중학생 6명 등 31명이며, 지원금액은 60만~300만원이다.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해 해당학교 졸업시까지 개인 레슨비, 학원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3명을 선발했으며, 22명이 학교를 졸업함에 따라 인원이 조정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대학생 5명, 고등학생 38명, 중학생 10명을 각각 미래리더, 예술리더, 체육리더 등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오는 8월에는 숨은 인재 발굴대회를 개최해 신규 인재를 추가하고, 9월에는 2020년 하반기 재능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남도음식거리 대상지 공모...2년간 10억 지원

전남도가 오는 5월 18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선정된 시·군 2개소에 대해 2년간 각각 10억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는 거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비, 홍보 등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남도는 오는 5월 15일 전문가들로 음식거리조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평가 및 현지 실사를 거쳐 5월 22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도음식거리는 지난 2016년 5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2~3개소씩 선정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2개소가 지정돼 6개소는 사업이 완료되고, 6개소는 현재 추진중이다. 2016년에는 순천 옷장국밥거리, 광양 불고기테마거리, 곡성 압록참깨·은어거리, 보성 벌교대백산맥조각거리, 완도 전복명가거리 등이, 2017년 고흥 장어음식거리, 신안 섬별낙지거리, 2018년 장흥 키조개·바지락거리, 무안 낙지특화거리, 2019년 강진 돼지불고기, 영광 굴비거리, 장성 장어거리 등이 각각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